

# 영상매체 시대의 책 만들기

‘책의 위기’ 극복방법은 진한 감동뿐

송영  
소설가

중국 상해에서 최근 출판된 책을 한권 보내왔다. 그쪽 출판계 인사가 작년에 한국에 다녀갔는데 인사로 책 한권을 보내준 것이다. 이 책을 받아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책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책인데 표지 장정이나 종이 품질이 조악하기 비할데 없었다. 60년대 우리나라 시골장터에서 거름종이 위에 펼쳐놓고 팔았던 「장화홍련전」 같은 이야기 책을 연상하면 딱 맞을 것이다. 중국의 산업화가 좀 늦었다고 하지만 첨단시대라고 하는 요즘 설마 이런 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원자탄도 만들어냈고 인공위성도 발사했지 않은가. 최근 세계시장을 향한 중국영화의 괄목할 진출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다.

## 책의 걸모습은 국민 소득수준과 비례

그런가 하면 대만의 책들은 우리보다 한결음쯤 앞서가고 있었다. 몇해전 그쪽 문사가 서울 와서 자기 저서 한권을 주었는데 장정은 몰라도 종이 품질이나 인쇄상태는 당시 우리보다 훨씬 나아보였다. 책 한두권 가지고 그 나라 출판을 평가하는건 무리지만 적어도 대만이 한국의 책에 우리보다 돈을 더 쓰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출판왕국이라면 우리는 가까운 일본을 연상한다. 일본 출판물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출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책방에 가보면 우선 장정이 무척 다채롭고 재미있게 꾸며진걸 느낄 수 있다. 누구나 책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을 느끼도록 장정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이다. 종이 품질이나 인쇄상태도 세계 상위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심지어 지방 행정관서에서 퍼내는 대민홍보용 책자 한권 만드는 데도 기울이는 정성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은 우리 형편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십년 이십년 전 우리가 만든 책을 보면 이런 책을 어떻게 책방에 진열해놓고 팔았든가 싶을만큼 종이나 인쇄상태가 볼품이 없다. 장정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다. 그 당시 우리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책을 보면서 몹시 부러워했다. 아직도 선진국들 책에 비하면 우리 책은 장정이나 종이 품질이 많이 떨어진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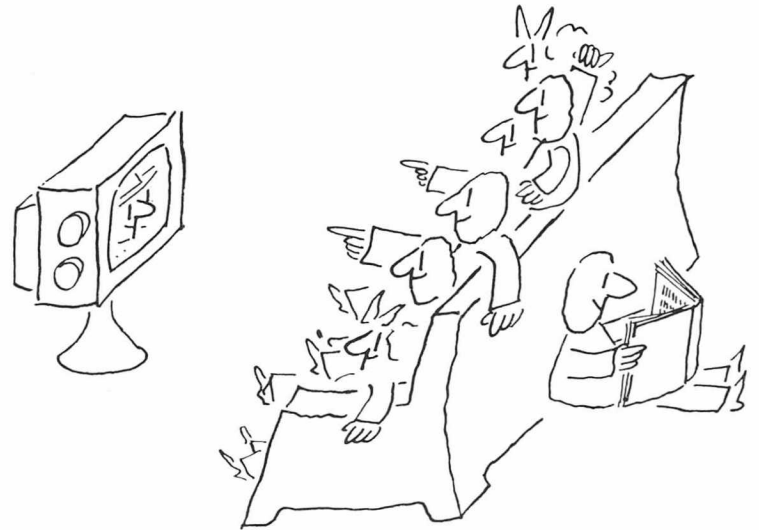
책 만드는 기술이 모자라서 아직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한국의 책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간 수치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책의 모양새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물론 다소의 기술격차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중국에서 출판된 조악한 책과 뜻밖에 일본 수준에 다다른 것 같았던 대만의 책이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이다. 책의 품질은 국민소득수준과 비례한다는걸 상정해볼 수 있다.

영화제작자들도 제작비의 한계 때문에 할리우드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 수준높은 인쇄기술로 찍어낸 책이 반드시 그 내용도 높은 품질을 지닌다는 보장은 없다. 대만의 책들이 비록 본토인 중국쪽 책들보다 장정이나 종이 품질에서 수준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그럴거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도리어 내용면에서는 이 양자는 반대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영화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문학쪽을 보더라도 중국쪽이 도리어 더욱 다양하고 유연성을 지닌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이 자유진영에 속하지만 정치적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묶여있었던 게 사실이고 창작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경계는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는 제자리걸음을 해오지 않았나 여겨진다. 반대로 본토에서는 일찍부터 개방화 바람이 불었고 획일적 사상에 대한 저항의 열정이 끊임없이 타올라 그것이 다양한 창작의 열정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한 동족이면서 두 개의 국가로 존립하는 이 두 나라의 최근 문화적 경향을 그들의 정치역정과 경제상황과 결부해 비교해보면 무척 재미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비교는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인모임에서도 영화이야기만 무성해

인쇄문화의 시대가 가고 그 자리에 영상문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런 얘기는 이미 70년대초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요즘은 비디오나 컴퓨터, 혹은 디스크를 통한



영상의 전달이 텔레비전을 도리어 앞지르고 있는 경향마저 있다. 영상문화는 앞으로도 발전해가겠지만 지금도 그 극점까지 도달해 있다는 말이다. 책을 통해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에는 자주 들었다. 좌석에서 한국의 책이 늘 화제가 되었다. 최근 내 주변에서는 비디오나 어떤 다른 영상매체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책얘기는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어떤 동료작가가 ‘가위손’이란 영화를 비디오로 봤는데 무척 크게 감명을 받았을뿐 아니라 창작에도 도움이 될 어떤 영감을 얻었노라고 내게 말했다. 이런 얘기는 요즘 흔히 듣는다. 그때마다 이런걸 느낀다. 영상을 통해 감명을 받는 일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에는 책에서 감명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상을 통해 감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이 벌써 퇴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칠십년대에 텔레비전이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으로 등장했을 때 나 자신도 책의 퇴각을 걱정했었고 지금쯤 그런 날이 올 줄 모른다는 예상을 했었다. 나는 그 예상과 함께 영상의 도전에 대비해서 책의 저자들은 좀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거리의 책방에 가보라. 책방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 앉아 신문의 책광고란만 봐도 좋다. 책들이 퇴각은 커녕 도리어 날로 번성해서 그 출판량이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책은 영상매체의 등장과 함께 도리어 어떤 활력소를 얻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좋은 영화뿐만

아니라 여전히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원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에서 얻는 생활상식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책을 통해 얻어지는 체계적인 교양과 상식을 원하고 있다. 영상매체의 활발한 등장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자극해서 그것이 책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심증까지 생긴다. 물론 몇년동안의 체험으로 먼 미래의 전망을 내리는건 무리이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낸 볼품없는 책 한권을 바라보면서 한 사회 혹은 국가가 책 한권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일이 미사일과 원자탄을 만들어내는 일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 영상시대 책의 활로는 오직 감동전달뿐

영상매체는 오늘도 빠르게 개량되고 매일 신문은 새것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책은 굶뱅이처럼 느리기만 하다. 제품개발기술이 그렇게 느리면서도 이 첨단 시대에 여전히 양적으로 증가추세를 누리는 책의 힘이 무엇인지를 곰곰 생각해보자. 그리고 비디오나 영화에서 감명과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이 책의 본질적 위기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의 책 만드는 기술도 비교적 빠르게 향상을 이루어왔다. 국민소득 증가와 그 향상이 비례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머지않아 일본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